

농업 벤처 기업 분석과 활성화 방안 연구

허철무*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농업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영현황 및 애로사항, 지원 우선순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농업벤처기업 103개소를 대상으로 벤처기업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일반벤처기업 2,098개소, 농림어업 벤처기업 6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비교 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일반벤처 대비 높은 금융비용과 부채비율, 신규자금에 대한 높은 정부 의존도,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벤처 투자 유치 실적이 저조함으로 인해 농업벤처기업의 재정 여건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산물 중 부가가치가 높고 수출 가능한 품목을 선별하여 육성하는 투자 방안이 필요하며,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 매칭 펀드 방식의 혼합 지원 및 크라우드 펀딩의 활용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농업벤처는 일반벤처에 비해 R&D투자보다는 설비투자 비중이 높으나 연구개발 자금지원을 가장 필요한 방안 1순위로 꼽고 있으며, 자가 기술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제조업 기업 비중이 63.2%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 분야의 편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하여 해외 시장을 고려한 제품 연구개발 및 생산원가 경쟁력 확보, 그리고 관련 분야 투자유치와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투자 기반 사업화 추진과 제조업 외 다양한 분야의 육성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규모가 적고 기업이 안정화되지 못해 신규인력 확보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확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속적인 농업 인력 감소에 대응하여 스마트농업 가능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며, 농업벤처 지원·교육의 체계화와 효율화를 위한 컨트론타워가 필요하다. 넷째, 국내외 판로개척에 대한 애로사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관 주도의 수출지원정책에서 민간 참여 위주로 정책 방향 변경이 필요하며, 수출대상국에 적합한 전략적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이 필요하다.

1. 서론

우리나라 농업은 개방화의 물결, 내부적인 노동력 문제, 외부와의 경쟁 조건에서 결정되는 가격열세 등의 문제로 인해 위기상황이라는 분석이 증가하고 있다. 농지, 시설 등의 하드웨어 기반과 장기간 축적된 노하우(소프트웨어)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농업벤처가 위기 상황 극복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새로운 농업관 정립,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라는 점에서 농업벤처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농업벤처라 함은 농업 생산 및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유통 뿐만 아니라 농업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산업 등

에 개인 또는 소수의 창업인이 높은 위험성 대비 높은 투자수익률이 기대되는 사업에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금확보, 경영상 애로사항, 활성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지원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했다. 또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일반벤처기업과 농업벤처기업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농업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개발과 농업번인 등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통해 농업벤처기업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개발 방향 수립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되었으면 한다.

2. 연구 배경

2.1. 농업벤처기업

국내에서는 벤처기업인증 기업 중에서 농업을 중심으로 전후방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농업벤처기업을 정의하고 있으며(협회의 정의), 넓게는 기술혁신과 시장혁신을 선도하는 농업 관련 법인 및 농업인으로 정의하고 있다(광의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협회의 정의를 기준으로 농업벤처기업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2.2. 농업벤처기업 현황

2015년 1월 기준으로 전체 30,012개 벤처기업 중 농업벤처기업 수는 801개로 약 2.7%에 불과하다. 농업벤처기업의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66개로 6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가공 및 저장처리업이 107개로 11.9%를 차지해 제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3. 농업벤처 투자 현황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농식품모태펀드의 펀드결성금액은 4,670억원이며 정부 2,492억원, 민간 2,178억원으로 구성되었다. 동일 시점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실적은 총 155건, 2,258억원으로 결성금액의 48.4%였다.

중소기업청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모태펀드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7개 업체에 49억원을 투자하였다.

한편 정부의 전체 벤처·창업 관련 재정지원 규모는 2014년 현재 2조 1,661억원이었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및 자료 분석

국내 농업벤처기업 103개소를 대상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재정 현황, 자금확보 방법, 엔젤 투자자 및 벤처캐피탈로부터의 투자경험과 투자유치 시 애로사항, 경영상 애로사항,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 벤처기업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일반벤처기업과 농업벤처기업 간의 경영 활성화 수준 비교 분석을 위해 일반벤처기업 2,098개소, 농림어업 벤처기업 6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벤처기업협회)를 활용하였다. 두 집단 간 벤처 활성화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정부 정책지원 경험 여부, 신규자금 조달 및 투자금 활용 현황, 경영애로사항 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4.1 산업분야 및 사업체 규모

조사대상 농업벤처기업(N=103)의 현재 참여 중인 농산업 분야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고, 재무적 성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2>과 같다. 농업벤처기업은 농식품 가공산업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출액은 상위 80%를 기준으로 상위 10%의 매출액은 약 29배가 높았으며 하위 10%는 1%에 불과하였다.

<표 1> 참여 중인 농산업분야

| 구분 | 투입재 분야 | 농축산업 생산분야 | 농식품 가공산업분야 | 농축산물 유통분야 | 기타 |
|--------|--------|-----------|------------|-----------|-----|
| 백분율(%) | 18.0 | 16.2 | 47.7 | 9.0 | 9.0 |

<표 2> 재무적 성과(2014)

| 구분 | 상위 10% 평균 금액 | 중위 10% 평균 금액 | 하위 10% 평균 금액 | 전체 평균 금액 |
|------|--------------|--------------|--------------|----------|
| 매출액 | 31,684 | 1,078 | 9 | 3,790 |
| 격차 | 29.39 | 1.00 | 0.01 | |
| 영업이익 | 3,175 | 101 | -239 | 360 |
| 격차 | 31.44 | 1.00 | -2.37 | |
| 부채 | 16,542 | 542 | - | 2,007 |
| 격차 | 0.03 | 1.00 | - | |

4.2. 자금확보 방법 및 투자유치 경험

자금확보 채널별 비율의 평균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고, 엔젤 투자자 및 벤처캐피탈(투자조합 포함)으로부터의 투자유치 경험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자체조달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엔젤투자자 및 벤처캐피탈을 통한 자금확보 비율은 0.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투자유치 경험 역시 '없다'로 응답한 비율이 엔젤투자자 92.2%, 벤처캐피탈 91.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투자유치 시 애로사항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3> 자금확보 채널별 비율

| 구분 | 자체 조달 | 친척 및 지인 | 민간 금융권 | 정책자금 (융자, 보조) | 주식 및 채권발행 | 캐피탈, 엔젤투자 | 기타 |
|------|-------|---------|--------|---------------|-----------|-----------|------|
| 평균비율 | 46.7% | 6.1% | 15.6% | 22.7% | 4.4% | 0.6% | 3.9% |

<표 4> 투자유치 경험

| 구분 | 이미 투자를 받은 상태 | 투자유치 협상을 진행중인 상태 | 과거 투자유치에 실패한 상태 | 투자유치 경험 없음 |
|-------|--------------|------------------|-----------------|------------|
| 엔젤투자자 | 3.9% | 1.9% | 1.9% | 92.2% |
| 벤처캐피탈 | 4.9% | 0.0% | 3.9% | 91.3% |

<표 5> 투자유치 시 애로사항

| 구분 | 관련정보의 부족 | 특정분야에 투자처우침 | 까다로운 투자조건 | 관련 제출서류 작성 어려움 | 관련 기관 수 부족 | 기타 |
|----|----------|-------------|-----------|----------------|------------|-------|
| 비율 | 40.9% | 7.3% | 21.8% | 10.0% | 2.7% | 17.3% |

4.3. 경영상 애로사항 및 지원 우선순위

농업벤처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각 항목별로 1점(매우낮음)부터 5점(매우높음)까지 표기하도록 하여 파악 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한 1순위, 2순위 응답에 따른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6> 경영상 애로사항

| 구분 | 신기술 개발/보급 | 원천/응용 기술 습득 |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 판로(시장) 개척 | 인력 확보 및 유지관리 | 자금 조달 | 산학연간 협력활동으로 | 각종 규제(법제 등) |
|----|-----------|-------------|-------------|-----------|--------------|-------|-------------|-------------|
| 점수 | 3.5 | 3.4 | 3.7 | 3.9 | 3.7 | 3.8 | 3.1 | 3.5 |

<표 7> 지원방안 우선순위

| 구분 | 1순위 | 2순위 | 응답합계 |
|----------------------------|-------|-------|-------|
| 농업분야 연구개발 자금지원 | 51.5 | 11.8 | 63.3 |
| 대학 등 신규인력양성 | 1.9 | 7.8 | 9.7 |
| 연구소기업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확대 | 18.4 | 12.7 | 31.1 |
| 농업인의 농기계/신기술 도입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 9.7 | 24.5 | 34.2 |
| 관련 법제도 개선 | 5.8 | 13.7 | 19.5 |
| 농업 관련 투자펀드 확대 | 8.7 | 17.6 | 26.3 |
| 시범사업 확대 | 2.9 | 9.8 | 12.7 |
| 기타 | 1.0 | 2.0 | 3.0 |
| 합계 | 100.0 | 100.0 | 100.0 |

4.4 일반벤처와 농업벤처 기업 간 비교결과

기업성장 단계 비교 결과, 일반벤처와 농업벤처 모두 초기성장기에 있는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표 8>), 경영성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일반벤처에 비해 농업벤처가 모든 지표에서 열위를 보였다(<표 9>).

<표 8> 기업성장 단계 비교

| 구분 | 창업기 | 초기성장기 | 고도성장기 | 성숙기 | 쇠퇴기 |
|------|-------|-------|-------|-------|------|
| 일반벤처 | 9.4% | 36.3% | 32.5% | 21.4% | 0.4% |
| 농업벤처 | 13.4% | 32.8% | 31.3% | 22.4% | 0.0% |

<표 9> 경영성과 비교

| 구분 | 매출액 평균(만원) | 영업이익 평균(만원) | 금융비용 평균(만원) |
|---------|------------|-------------|-------------|
| 일반벤처(A) | 683,711 | 35,820 | 10,404 |
| 농업벤처(B) | 578,322 | 21,485 | 11,490 |
| B/A | 84.6% | 60.0% | 110.4% |

농업벤처의 재무현황을 일반벤처기업 및 중소기업과 비교·분석한 결과 자기자본비율은 낮고 부채비율은 높게 나타났다(<표 10>). 정부 정책지원 경험여부는 농업분야의

다양한 정책자금으로 인해 농업벤처가 높게 나타났으나 평균 수령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또한 사업초기 신규자금 조달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반벤처의 캐피탈 및 엔젤투자 비율은 0.5%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농업벤처의 경우 0.0%로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2>). 투자금 활용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0> 재무현황 비교

| 구분 | 중소기업 | | 일반벤처 | | 농업벤처 |
|--------|--------|--------|--------|--------|--------|
| | 전체 | 제조업 | 전체 | 제조업 | |
| 자기자본비율 | 37.3% | 56.3% | 40.5% | 39.4% | 30.8% |
| 부채비율 | 168.3% | 159.1% | 146.7% | 154.1% | 224.2% |

<표 11> 정부 정책지원 경험 여부 비교

| 구분 | 정부 정책지원 경험 여부 | | 평균 정책자금 수령액(만원) |
|------|---------------|-------|-----------------|
| | 있음 | 없음 | |
| 일반벤처 | 44.7% | 55.3% | 40,563 |
| 농업벤처 | 56.7% | 43.4% | 38,154 |

<표 12> 사업초기 신규자금 조달 비교

| 구분 | 평균 조달규모(만원) | IPO | 캐피탈, 엔젤투자 | 회사채 발행 | 정부정책 지원금 | 일반 금융 | 기타 |
|------|-------------|------|-----------|--------|----------|-------|-------|
| 일반벤처 | 63,886 | 0.0% | 0.5% | 1.8% | 64.9% | 20.5% | 12.3% |
| 농업벤처 | 53,865 | 0.0% | 0.0% | 4.2% | 67.0% | 22.4% | 6.5% |

<표 13> 투자금 활용 비교

| 구분 | 국내설비 | 국내R&D | 해외 | 기타 | 평균투자액 |
|------|-------|-------|------|-------|----------|
| 일반벤처 | 41.1% | 41.6% | 1.7% | 15.6% | 55,927만원 |
| 농업벤처 | 65.5% | 28.0% | 1.2% | 5.3% | 59,826만원 |

경영애로사항을 비교·분석한 결과 농업벤처와 일반벤처 모두 자금조달/운영 등 자금관리에 가장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타 항목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표 14>).

<표 14> 경영애로사항 비교

| 구분 | 일반벤처 (5점척도) | 농업벤처 (6점척도) |
|---------------------|-------------|-------------|
| 신기술개발 | 3.6 | 3.4 |
|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 3.7 | 3.8 |
| 국내 판로개척 | 3.7 | 3.7 |
| 해외시장 개척 | 3.6 | 3.8 |
| 필요인력의 확보 및 유지관리 | 3.7 | 3.6 |
| 자금조달/운영 등 자금관리 | 4.0 | 4.0 |
| 기술유희디자인 및 상표 도움 | 3.0 | 3.0 |
| 업계내 과다경쟁 및 덩핑 애로 | 3.2 | 3.3 |
| 법률, 회계, 세무 관련 지식 부족 | 3.0 | 3.2 |
| 조직 관리 | 3.0 | 3.1 |
| 환율 변동 | 2.8 | 2.9 |
| 특허 분쟁 | 2.6 | 2.7 |
| 각종 규제 | 3.1 | 3.3 |
| 산학연간 협력활동 | 2.9 | 3.0 |
| 불공정한 시장질서 | 3.0 | 3.0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농업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영현황 및 애로사항, 지원방안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고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일반벤처 대비 높은 금융비용과 부채비율, 신규자금에 대한 높은 정부 의존도,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벤처투자 유치 실적이 저조함으로 인해 농업벤처기업의 재정여건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농업벤처는 일반벤처에 비해 R&D투자보다는 설비투자 비중이 높으나, 연구개발 자금지원을 가장 필요한 방안 1순위로 꼽고 있으며 자가 기술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제조업 기업 비중이 63.2%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 분야의 편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업규모가 적고 기업이 안정화되지 못해 신규인력 확보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내외 판로개척에 대한 애로사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농업벤처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투자 부문의 추진 방향은 농산물 중 부가가치가 높고 수출 가능한 품목을 선별하여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초기기업에는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 지원, 매칭 펀드 방식으로 혼합하여 지원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특성을 살려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활용한다면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들로부터 성공적으로 투자자금을 모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 지원을 통해 판로를 수출 위주로 확대하여 기업 규모를 성장시킴으로써 창투자들로부터 활발한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

둘째, 연구개발 부문의 추진 방향은 해외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제품개발에 비중을 두고 생산원가 경쟁력과 시장지배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투자유치를 증대하고 해당분야의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벤처기업은 자가 기술에 대한 자긍심이 큰 것으로 나타나 소프트 경쟁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를 기본으로 한 사업화 추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조업 위주의 농업벤처로부터 탈피하여 다양한 분야의 농업벤처 육성이 필요하다.

셋째, 인력확보 부문의 추진 방향은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시설농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 가능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업벤처 지원에 참여한 다양한 기관별 정책과 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부처별 정책 공조를 위해 총괄 관리·감독기관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규모가 적고 안정화되지 못한 벤처기업의 특성상 신규인력 확보를 위한 대안 수립이 필요하며, 사무직은 읍·면 단위 공동사무실 운영, 생산인력은 도시와의 협업체계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시장개척 부문의 추진 방향은 네덜란드 농업의 수출장려 정책과 같이 해외시장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관 주도의 수출지원정책에서 민간참여 위주로 지원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대상국에 적합한 전략적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이 필요하다. 이는 해당국가의 소비자특성과 가격경쟁력을 고려한 품목 선정과 상품 개발을 의미한다. 내수활성화 또한 중요하다. 오프라인 유통채널로서 지역 내 로컬푸드와 연계한 기본 거래처 확보, 도심 상권을 고려한 식품전문점, 프랜차이즈와의 제휴 등을 통해 고정 수요처 확보가 필요하다. 온라인 유통채널 확보방안으로는 품목별 특성에 맞는 온라인 거래처 발굴과 자체소핑몰 구축 및 관리를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고객관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 농업·농촌에 대한 2014년 국민의식 조사결과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2016), 2016년도 농림수산물 수출동향 및 통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2015), 과학기술 기반 농업농촌 혁신 생태계 구축방안,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2013),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 미래창조과학부.
- 벤처기업협회(2014), 2014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벤처기업협회.